

# 부산상의 “‘더 잘되는 경제·상의·기업’ 위해 노력할 것”

## 창립 135주년 기념식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 확대  
기부금 전달식·심포지엄 진행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 상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이며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5년 동안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종합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삼성그룹 고(故)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고 구인회 회장 등 전국구 기업인들이 부산상의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는 부산은행, 부산도시가스, 부산생명보험, 제일투자신탁, 에어부산 등 다수의 기업 설립을 주도하며 지역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 유치, 에어부산 분리 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립 기념식은 1부 기념행사와 2부 정책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 행사에서는 주요 내빈들의 축사 그리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긍정&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이어 2부에서는 ‘더 잘되는 부산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 경제의 지속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상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정책 심포

지엄이 이어졌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도 ‘부산 경제 발전 전략과 상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부산상의가 재정 안정과 독자적 혁신 역량 확보 그리고 부산시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정책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산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비영리 경제단체인 부산상의가 한 세기를 넘어 135년 동안 부산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은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어다닐 것이며, 당면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철 같은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전남도

####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전남도가 160억 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105억 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67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5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하 시설물 데이터와 실제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돼 주민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 진도군

####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 개시

진도군은 민원인이 팩스 대신 문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개시했다.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는 IT(정보통신 기술) 취약계층 등 팩스 사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개발한 서비스이며,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핸드폰 사진 촬영 후 전자팩스 번호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 전송하면 된다.

이미지 형태의 사진만 전송할 수 있으며, 서류 사진이 군 전자팩스함에 정상적으로 수신되면 접수 알림 문자가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샌안토니오 청소년단체 방문 환영행사.

/광주광역시

## 광주시-美 샌안토니오, 친선 교류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진행 3박4일간 광주 역사 배워

광주광역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이 광주를 방문, 광주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광주를 방문한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과 광주 청소년들이 광주 전역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는 1982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42년 동안 활발하게 도시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론 니렌버그 샌안토

니오시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광주를 방문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e스포츠경기장을 시찰하는 등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교류를 강화했다.

자매도시 교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두 도시의 자매도시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민간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안토니오시 청소년 26명과 광주 청소년 10명 등 총 36명은 3박4일 일정으로 광주의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해남군, 내달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눈길

### 미니 K-POP 콘서트도 진행

해남군은 8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2024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미니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매년 여름 군민광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일 해남예술인 한마당과 3일 K-POP 미니콘서트로 꾸며진다.

2일 해남예술인 한마당은 오후 7시부터 초대가수 송대관을 비롯해 염유리, 강혜연, 진이랑, 금강 등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여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3일에는 오후 8시부터 마야, 이무진, 트리플에스 등 실력

파 가수들과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하는 미니 K-POP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로 여름밤을 달굴 예정이다.

특히 3일에는 미니콘서트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K-POP 플레이그라운드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10개 지역 유명 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해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해남이 공모에 선정되어 해남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기간 열린다.

오후 3시 K-POP 아이돌 파우(POW)의 팬 사인회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유명댄스크루인 ‘엠비서스’와 함께하는 랜덤플레이 댄스를 진행한다.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만든 ‘한방 댄스’ 안무 챌린지와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도,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 선발

### 돌봄공백 우려 가정 대상 활동

경북도가 22일부터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 69명을 선발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은 대구·경북지역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 2학년 이상의 대학생 중 대학에서 추천받은 자로 인·적성검사, 면접, 사전 필수교육 등을 거친 후 돌봄 활동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인재 활용을 위해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을 기획해 지난 5월 대구·경북 지역 10개 대학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최대 시간당 1만1630원)을 90~100% 지원한다.

그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아이돌보미를 지속해서 총원했음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서비스 이용 신청이 집중되고, 대기 가정이 발생하는 등 돌봄 공급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돌봄 활동에 선발된 대학생 지원단들은 지난 10일과 12일 안동과 구미에서 아동 안전관리 교육, 유아·아동 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현장 교육을 가졌다.

## 부산시,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

### 지자체 중 유일 수상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기관과 직원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자체 1위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훈격이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지난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국민평가단’과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평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기장군

#### ‘여름바다’ 현대미술 작품전

부산 기장군은 오는 23일부터 박태준기념관에서 현대미술 작품전인 ‘Waving Waves 파랑 파란 파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전은 여름 바다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작품이 전시되며 ▲건축 ▲조각 ▲영상 ▲공예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기념관 입구에서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수정원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이 파도 물결처럼 배치돼 기념관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